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8년 1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경, 목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70번(평화를 구하는 기도)
2. 목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주고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루카 6,17· 20-26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경을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①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친다.
 - ② 다음 모임을 결정한다.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31번(이 크신 모든 은혜)

MEMO

<교리 2>

1. 성호경

기도는 언제나 십자성호를 긋는 성호경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성호경은

- 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기본적인면서도 위대한 기도로서
- ②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 ③ 이로써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성호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천천히 그어야 합니다.

어느 사제는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묵상하며 아주 천천히 정성을 다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성호를 그음으로써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잊고 지냅니다. 나아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인 십자성호를 긋는 것에 그리 큰 주의와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호경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2.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이유(인간과 종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우리는 언제 저 세상으로 떠날지 모르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초라함을 느꼈을 때 자신을 구원해줄 신(神)을 찾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참인간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계시해 주십니다. 따라서 천주교를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천주교에는 네 가지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 ①천주존재(天主存在), ②상선벌악(賞善罰惡), ③삼위일체(三位一體), ④강생구속(降生救贖)입니다.

3. 계시 종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계시(啓示)’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대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①대자연을 통해서 ②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③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양심에 순종하는 데 있으며 그 여하에 따라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곳이며 여기서 우리는 홀로 하느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목상>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루카 6,17· 20-26>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6,20-26). 이 여섯 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신 제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화(禍)’가 담겨 있는데 이것들은 예언자로서의 제자들을 상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축복은 참 예언자들에게 해당되고(22-23절), 네 가지 화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해당됩니다(26절). 참 예언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의해 하느님의 계획이 선포되게 합니다. 그들은 돈과 음식, 쾌락,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등은 결코 인간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즉 하느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거짓 예언자는 돈과 음식, 쾌락, 세상으로부터 받는 존경이 인간 삶의 진정한 목표인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갑니다.

생활방식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까닭에 가난과 주림과 슬픔과 배척을 겪게 되는 제자들은 복되다(행복하다). 그들은 위대하신 예언자 예수님께서 하신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는 당신이 구약성경에서의 현자들처럼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좋고 가장 효과적인 길임을 체험을 통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화(불행)는 거짓 예언자들의 길이 걸보기와는 달리 매우 비참하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을 영원히 가로막아 버리고 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웃으며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선언합니다.

부(富)는 인간에게 거짓된 안심과 안전감을 주기 쉽습니다. 인간은 곧잘 부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며, 혼자서 편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부자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명백히 보여주십니다(루카 12, 13-21).

부(富)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느님의 자리를 넘보기도 합니다. 부가 지고의 가치가 되어 하느님을 밀쳐내기도 합니다. 황금이 하느님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경우 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재물을 먼저 그리고 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주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는 것은 부가 지니는 이러한 모든 위험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하느님만을 유일한 구원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것을 예수님의 가치관에 자기의 가치관을 맞추면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눔>

1. 나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 새해 소망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까치네는 오늘 아침에도 부부 싸움을 벌였다.

"까치 까치 까치"

"까치 까치 까치"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말다툼이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 까치가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 동지에 불평 귀신이 붙은 것 같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주 싸울 리가 없어."

아내 까치 또한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걱정 귀신, 불평 귀신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동지에 오면 걱정 불평이 그냥 쏟아지니

부부까치는 이튿날 산까치 도사를 찾아갔다.

"처음엔 저희 집이 안락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 불평 동지입니다.

귀신이 붙은 것 같사오니 그것들을 쫓아내는

비방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산까치 도사가 말했다.

"우리들은 기쁨을 '까치 까치 까치'하지요.

마찬가지로 불평도 '까치 까치 까치'하지요.

이 기쁨과 불평도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귀신이 시켜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요.

다만 기쁨은 첫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반해

불평은 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동지를 틀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걷히고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